

[DATE]: 2026-07-31 07:02 KST
[REPORT_TYPE]: 장전 브리핑 (Pre-market Briefing)
[STATUS]: SYSTEM ACTIVE

2026년 하반기 글로벌 시황: 자본 이동과 팩터 디커플링

극심한 시장 변동성 속 기관 투자자를 위한 전술적 매크로 브리핑

USD ▲ +11.75%
BTC ▲ -1.17%

USD ▲ +2.17%
US Outpuf ▲ +12.76%

KDM ▼ 11.65%
NTK ▼ -8.27%
GPC ▼ -9.24%

국국대탁 ▲ -10.08%
코리대탁 ▼ -17.13%

US ▲ +3.63%

GAD ▼ -1.70

소수하변 -0.00%
익커믹 1.82%

GDD 1.02%

GPD -0.19%

B&P 0.07%
창소시어횡 8.35%



한국 증시 폭락 및 수급 공백

KOSPI 1개월 34% 급락 및
5600선 붕괴.
정책 대응 부재 속 역대 최대 '셀코리아'.



미국 주도주의 독주

금리 부담에도 MSFT, SK하이닉스 등
AI/반도체 섹터 급등.
매크로를 이기는 실적 모멘텀.



피난처를 찾는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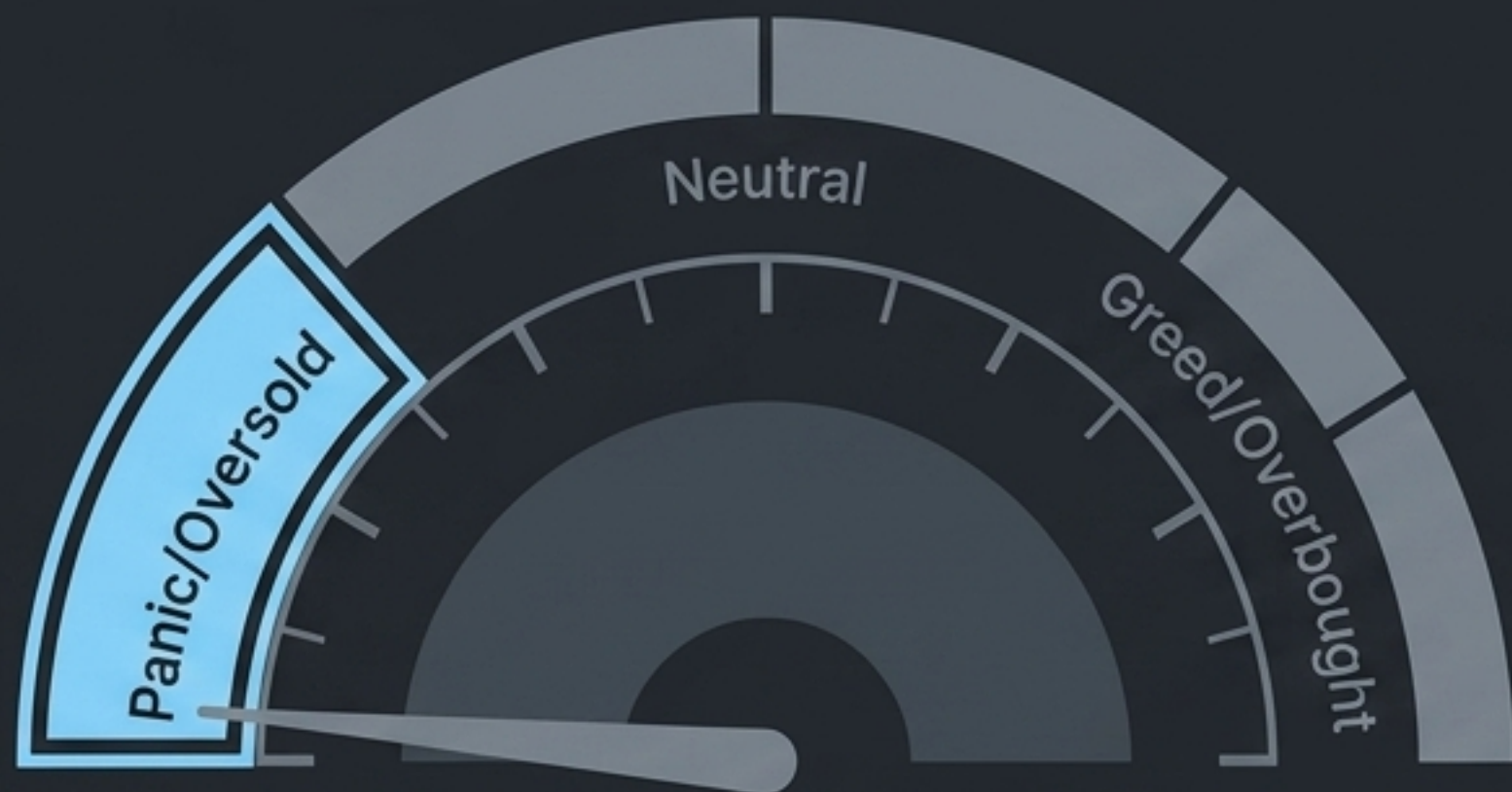
달러 약세와 불안감이 촉발한
금·비트코인의 동반 강세
(\$103,000 돌파).



아시아 증시 탈동조화

베트남·중국 반등 (Neon Red) vs
대만·일본 하락 (Ice Blue).
철저한 개별 모멘텀 중심의 파편화 장세.

Pressure Gauge



KOSPI: 5,593.56 (1개월 -34%)

KOSDAQ: 644.78 (-2.7%)

Supply-Demand Loop

1

수급 이탈 (Capital Flight)

6월 외국인 **51조 순매도** (역대 최대 '셀코리아') + 국민연금 매수세 약화.

2

심리 붕괴 (Sentiment Collap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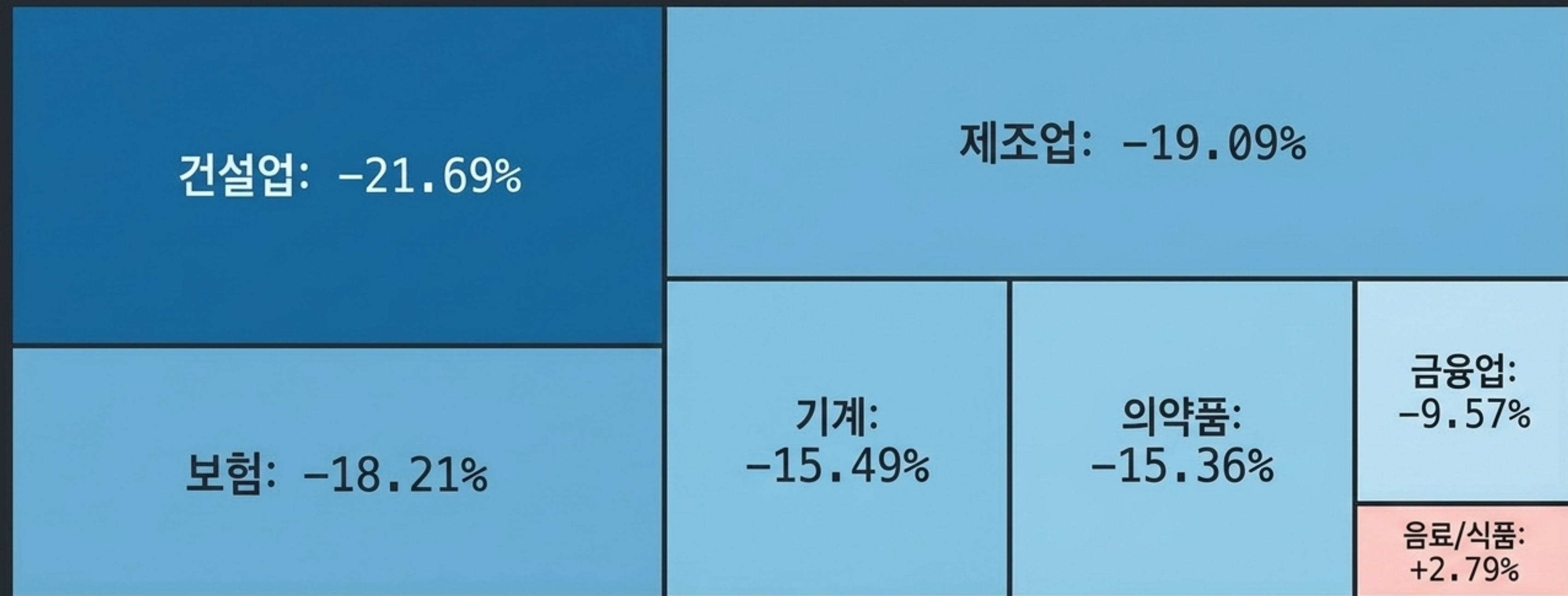
단순한 도박장 전략 우려,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외면. **전 세계 하락률 1위.**

3

정책 부재 (Policy Void)

"증시 안정책 언제 내놓나" - 하방을 방어할 밸브(Policy Valve) 상실로 변동성 극대화.

1개월 -34% 폭락의 진원지: 섹터별 데미지 리포트



Key Insight: 시총 상위주(삼성전자 1210조, LG에너지솔루션 74.9조 등)의 보합세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및 전통 제조업 중심의 투매가 지수 붕괴를 주도.

글로벌 디커플링: 왜 한국만 유독 무너지는가?

	KOSPI (한국)	NASDAQ/S&P500 (미국)
시장 모멘텀 (Market Momentum)	1개월 34% 하락 (역대급 침체)	나스닥/S&P 보합 뒤 숨겨진 변동성 속 주도주 랠리
핵심 동인 (Core Drivers)	정책 부재와 저평가의 늪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금리 부담을 상쇄하는 AI 및 반도체 어닝 서프라이즈
수급 주체 (Flow Dynamics)	개인 투매 (1.4조 매도) 및 외인/기관의 구조적 이탈	펀더멘털과 책임경영 기반 매수세 (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48억 매입)
대표 종목 현황 (Flagship Stocks)	삼성전자 (호재 무반응, 207,000원 보합)	SK하이닉스 (+17.52% 폭등), MSFT (+15% 급등)

미국 증시: 지수의 보합락시와 주도주의 독주

표면적 지수 (Surface)

S&P 500: 7,316.15 (+0.00%)

NASDAQ: 24,813.84 (+0.00%)

DOW JONES: 52,208.06 (+2.01%)
- 다우 상승은 일부 쓸림 현상 방증

MSFT
(마이크로소프트):
+15% 급등 ↗

SK하이닉스
(미국장 ADR/관련 테마):
+17.52% 폭등 ↗

전반적 반도체 주:
+2.78%~2.8%
강세 마감

수면 아래 주도주 (Under the Hood)

물가 둔화 기대감과 금리 부담이 혼재된 가운데,
오직 **‘확실한 실적(AI/반도체)’**만이 자본을
흡수하는 극단적 차별화 장세.

매크로의 무게 vs 실적의 힘

거시적 압박
(Macro Headwinds)

FOMC 매파적 기초 유지
물가 둔화에도 여전한 금리 부담
미 국채 10년물 5bp 상승 (4.671%)

미시적 방어력
(Fundamental Support)

강력한 AI/반도체 실적
책임경영 매수세
기술주 하방 경직성 확보

매파적 금리 동결(거시적 악재)이 쏟아져 내려도,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펀더멘털(미시적 호재)이 하단을 완벽히 방어하며 시장을 지탱하고 있음.

FICC 동향 (1): 통화와 금리의 엇갈린 역학

Macro Seesaw (매크로 시소)

미 국채 10Y 수익률 상승
4.671% (+5bp)
원인: FOMC 매파 기조 지속

달러인덱스 (DXY) 약세
0.5 (-0.32)
유로 강세 (EUR/USD 1.1790)
원화 강세 (원/달러 1,442.09, -5.30원)

> 통상적으로 국채 금리 상승은 강달러를 유발하나, 현재 ECB 금리 경로 재평가(유로 강세)가 맞물리며 달러 약세가 연출되는 이례적 크로스 현상 발생.

FICC 동향 (2): 피난처를 찾는 자본의 대이동

Safe-Haven Triangle (안전자산 트라이앵글)



금 (Gold / XAU)
\$103,000 (+\$18)
전통적 안전자산 선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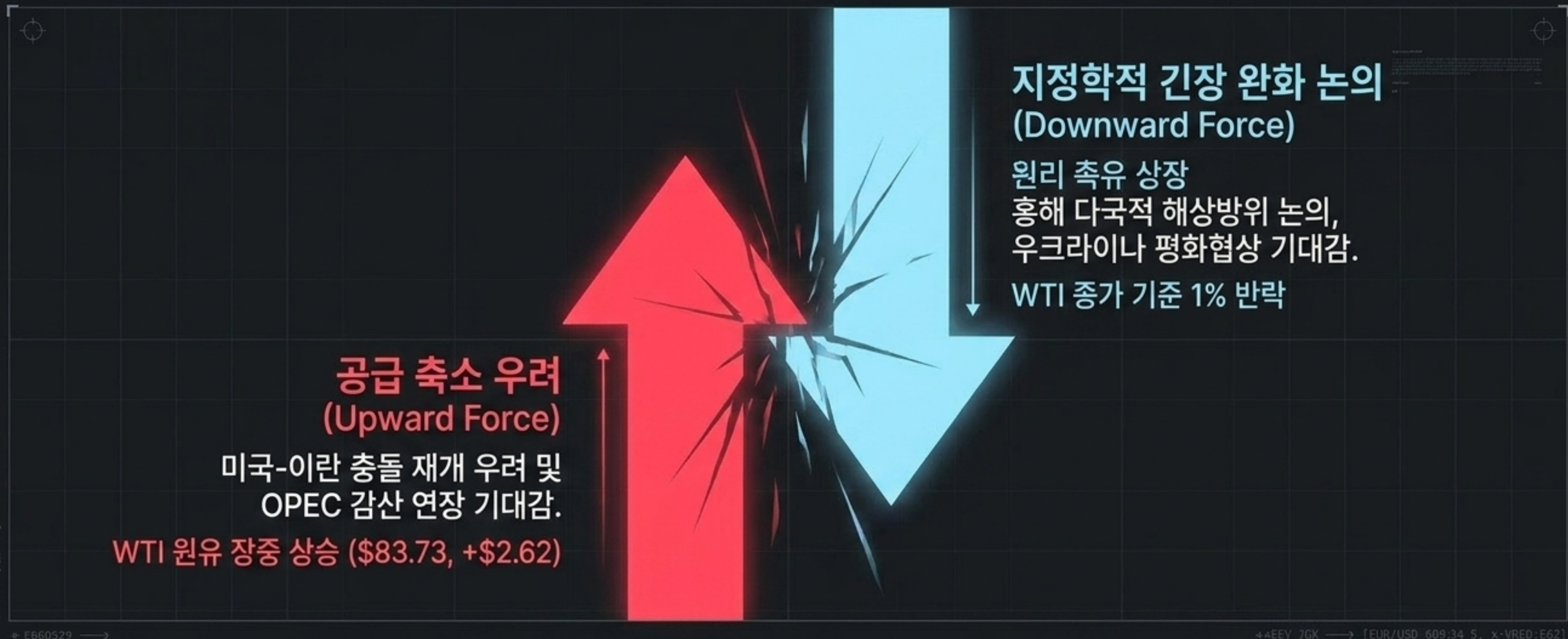


비트코인 (Bitcoin)
\$103,000 (+\$1,240)
현물 ETF 순유입 지속 및 대체자산 부상

증시의 불확실성(한국 폭락, 대만 반도체 쇼크 등)과 달러 약세가 결합되며, 무국적(Stateless)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으로 유동성이 강력하게 집중됨.

달러 약세 및 글로벌 매크로 불안감

FICC 동향 (3): 유가와 지정학적 변동성



> Key Insight: 원자재 시장은 펀더멘털보다 지정학적 헤드라인 뉴스에 따라 가격이 요동치는 '뉴스 주도(News-driven) 장세' 진입.

글로벌 아시아 증시: 철저히 파편화된 온도차

베트남 (VN지수 +2.35%)

대형주 및 빈그룹·금융주 주도의
강력한 저가 매수 랠리. 1740선 안착.

중국 (상하이 +0.45%, 선전 +0.62%)

본토 증시 정상 거래 속 소폭 반등.
(AI 공급과잉 경계 속 선별적 접근 권고).

대만 (가권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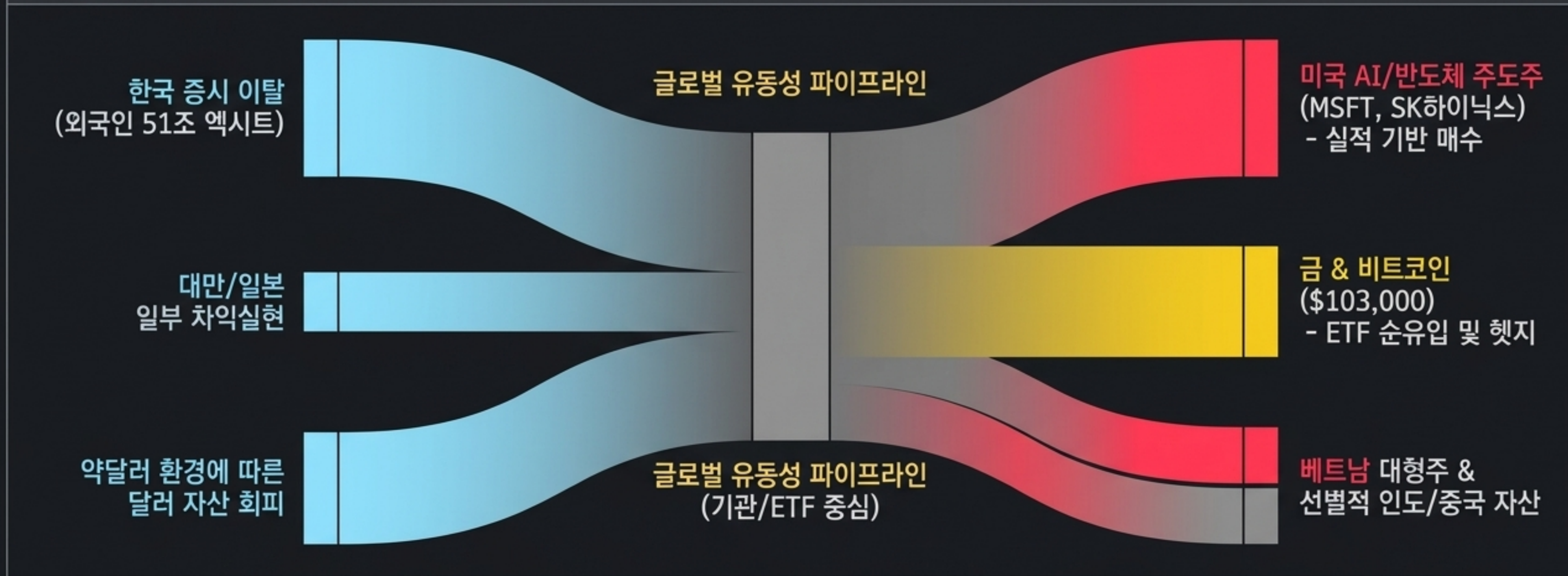
글로벌 반도체 약세 동조화로 닛새째
속락, 심리적 지지선 4만선 붕괴.

일본 (닛케이 -0.10%)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 강세 방어에도
불구, 반도체 혼조세에 밀려 하락 마감.

종합 인사이드: 자본의 대이동 (The Great Capital Rotation)

Sankey Diagram (Capital Rotation Pipeline)



현재 시장은 단순한 하락장이 아닌, 취약한 고리(한국)에서 자본이 빠져나와 확실한 실적(미국 기술주)과 안전자산(FICC)으로 재배치되는 '글로벌 유동성 재편 과정'임.

8월 대비 단기 전술 플레이북 (Actionable Strategy)

- > COMMAND 01: [국내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 및 헷지(Hedge) 대폭 확대. 정부의 '증시 안정책' 구체화 및 외국인 수급 턴어라운드 확인 전까지 보수적 접근.
- > COMMAND 02: [미국 주식] 나스닥 지수 자체보다는 호실적이 입증된 AI·반도체(MSFT, Hynix 등) 개별 종목 위주의 롱(Long) 전략 유지.
- > COMMAND 03: [FICC 대체자산] 달러 약세 및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헷지를 위해 포트폴리오 내 금(Gold) 및 비트코인 비중 확대 유지.
- > COMMAND 04: [아시아 신흥국] 맹목적 추종 배제. 자금 유입이 뚜렷한 베트남 대형주, 그리고 인도/중국 밸류 체인 선별 매수.

본 리포트는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 결정 및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ND OF TRANSMISSION]